





29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8394.65		920.57
	(-16.56)		(+69.20)
	금리 (연고채 3년)		환율 (원/달러)
	3.733		1542.00
	(+0.011)		(+10.00)



서남권, 반도체 생산기지로... 800조 투입 팹 4기 구축

3대 메가프로젝트

삼성·SK서 800조 투자 계획
李 대통령, 이재용·최태원에
“국가 영웅” 허리숙여 인사
8월 반도체 강화 특별위 출범



이재명 대통령과 최태원 SK 회장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향해 “국가 영웅”이라면서 허리 숙여 감사를 표했다. 정부는 호남 등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하겠다고 총 800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 4기의 메모리 팹(생산공장)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3·4·6면>

해당 프로젝트는 향후 이 대통령이 직접 챙길 방침으로, 오는 8월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되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며 이 회장, 최 회장에 “우리 기업인을 대표해서 이 두분에게 국가의 영웅, 또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를 발표한 데 대해 “기업이 이익을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활동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했다”며 “더 나은 조건을 갖춘 해외로 나갈 수 있겠지만, 우리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선택·결단을 해

주시 데 대해 우리 국민을 대표해 인사 한 번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 옆에서 있던 이재용·최태원 회장에게 90도로 인사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회장은 “열심히 하겠다”며 화답했다. 이 대통령과 이 회장, 최 회장은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상황을 인공지능(AI) 대항시대라고 규정하며 오직 속도

전민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부지·전력·용수 부족이 있는 수도권 대신,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말 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아권의 공세가 있었던 데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루는 동안 수도권·영남 중심으로 산업을 배치해 효율적으로 성장했지만, 이제는 집중이 비효율적이라

면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지역행(行)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과가 앞으로 대한민국에 20년, 30년을 책임지게 될 것이며, 우리 정부는 정책을, 그리고 법을 새로 정비하는 일부터 획기적인 변화를 설계하는 일까지 필요한 어떤 혁신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신속한 원스톱 행정 절차는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겠다. 청와대에 이 사업만 전담하는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회복에서 대도약으로 초격차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렸다. 호남·충청·영남권을 아우르는 첨단 핵심산업 지역역군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이날 발표된 정부 대책에는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동시에 충청권에 AI 데이터센터, 영남권에 AI로봇 등 퍼지컬 AI 관련 투자를 집중적으로 한

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는 호남 등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하겠다고 총 800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 4기의 메모리 팹(생산공장)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충청권에 81조원을 투자해 패키징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돼 있다.

강훈시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그간 반도체를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왔고, 작년 1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도체산업전략회의에서 ‘남부권 반도체 혁신 벨트 조성’을 보고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오는 8월 11일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되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도 출범하게 된다”며 “기업 프로젝트별로 관계 부처가 모두 포함된 TF를 만들고, 청와대에도 전담관을 뒀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신선란 1212억치 수입... ‘폭주 계란 값’ 잡는다

소비자 가격 10구에 5000원
지난달비 16%, 전년비 37% ↑
정부, 8월까지 2억여개 공급

계란 한 판 가격이 결국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정부가 수입란 2억 개 이상을 들여오며 시장 안정에 나섰지만 소비자가격은 특란 10구 기준 5000원을 돌파한 뒤 쭉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29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달 특란 10구 평균 소비자 가격은 지난달보다 16.33% 오른 5207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53% 오른 수준이다. 올해 특란 10구 가격은 1월 3900원대로 올라섰고, 5월 4476원으로 직전월보다 13.55% 상승했다. 특히 지난 5월 28일 사상 처음으로 5000원을 넘

어섯고, 이달 평균 가격도 5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2~2026년 평년 가격은 3530원이다.

폭주하는 계란값에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총 1212억원을 투입해 미국·태국·브라질 등에서 신선란 2억3139만 개를 수입한다. 지난주까지 전년 공급 부족분의 36% 수준인 2100만 개를 들여왔으며 다음 달까지 미국산·태국산 달걀을 매주 448만 개 이상, 총 2112만 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수입란의 국내 반입 비용은 항공 운송비와 재포장비 등을 포함해 30구 기준 최고 2만원대에 달해 판매가보다 운송비가 더 많이 드는 구조다. 그럼에도 시장에는 5000~6000원 수준으로 공급해야 가격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어 차액은 공적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도 수입산 계란은

입고되는 대로 팔려나가고 있다. 롯데마트·슈퍼에서 판매한 미국산 신선란은 매일 조기 완판됐고, 이마트도 지난 20일 미국산 계란 약 2만 판을 5880원에 판매해 당일 오후 모두 소진했다.

대형마트는 정부와 협력해 할인 행사도 이어가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 3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할 계란 행사를 진행 중이다. 농할 쿠폰을 적용하면 오는 7월 1일까지 ‘행복생생란(특란·30입·국산)’을 1인 1판 한정 6392원에 구매할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계란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졌다”며 “공급망 확보와 할인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란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지난 겨울 발생한 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체 산란계의 20%인 1135만 마리를 살처분하면서 공급이 급감했다. 정부는 7월 이후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늘면서 가격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 마리로 지난해보다 1.4% 증가했으며, 일일 계란 생산량도 6월 4705만 개에서 7월 4900만 개, 8월 4952만 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입식 물량이 늘어난 만큼 하반기에는 공급 확대와 함께 가격이 점차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여름철 폭염에 따른 산란율 저하와 폐사 등이 변수인 만큼 기상 상황을 지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

AI시대 성공적 노후 위한 자산전략

최근 우리 사회는 늘어나는 평균 수명과 삶의 질 향상으로 평생 자산관리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100세 플러스 포럼’의 성공적인 출발을 토대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오는 7월 9일(목요일) 개최합니다.

올해 포럼 주제는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제 및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AI 시대에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상속, 증여 전략, 부동산, 금융자산, 대체투자 및 미래투자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2)
- ◆ 주 제 :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
- ◆ 일 시 : 7월 9일(목)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40분~ 2시)
-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 문 의 :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李대통령 “대화·협력 통해 남북자 문제 실질 해결 노력”
▲이정현 “호남 기업투자, 보수가 먼저 환영·응원해야” /사진 뉴스시스

▲김의겸 “유시민 ‘재건축’론…핵심 지지층 한대신 토해낸 무당의 언어”
▲경찰, 김병기 ‘쇼핑백 의혹’에 “아직 혐의 단계 아냐…사건 곧 마무리”

▲국민의힘 “선관위, 입주청소 수준으로 청소할 것”
▲정점식, 與 ‘투표지 부족 특검’ 당론 추진 결정에 “환영, 野 추천 특검 임명해야”